

## 5/9(월) 에스더 묵상 6

### 에스더 4:1-1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의 사악한 간계로 인해 페르시아에 있는 온 유대인들은 전멸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모르드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큰 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왕후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처한 상황도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 큰 애통

모르드개는 하만에 의해 유다 온 백성들에게 내려진 소식을 듣고 침통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1절,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1절에 ‘이 모든 일은 하만의 악한 간계를 말하는 것입니다(에 3:13,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모르드개가 큰 애통에 빠진 것은 이 엄청난 일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일신을 섬기는 모르드개는 하만 앞에서 인간에게 인사 이상의 우상 숭배를 드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에 3: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것은 모르드개의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개는 유대인의 신앙적 절개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다윗 왕의 위대함도 그가 비록 다른 왕들과 사람들처럼 여러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는 결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는 유일신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사 그가 속한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삼하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다윗의 신앙이 대대로 국가의 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감으로써 계속된 반역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유대인들의 애통

아하수어로 왕으로부터 내려진 조서가 페르시아 각 지방에 전해지게 됩니다(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일로 각 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게 됩니다. 3절에서 유대인들이 행한 일은 모르드개가 했던 행위가 같은 것으로서 보통 민족적 위기를 겪거나 회개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했던 행동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까지 단 한번도 이러한 국가적 위기는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레스 시대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일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왕은 당시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스 1: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한편 왕후인 에스더는 처음에는 궁궐 밖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르드개에게 입을 의복을 내보내면서 궁궐 밖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5절,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그러자 모르드개는 하만에 의해 자신과 유다 백성이 처한 위기를 모두 에스더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 신하들은 모르드개로부터 전해들은 중요한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게 됩니다(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것은 에스더에게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제 그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결단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 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유다 백성은 포로기 기간 중에 최고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때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이는 우리 신자들이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다인들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기 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방법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주의 손길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르드개는 유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후인 에스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 중보기도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에스더와 같은 목숨을 거는 헌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사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과 선행,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욕망과 당리당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섬기고 이끌어가게 하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햄튼 1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